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특별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 304번째 후원자 '온누리교회 수원컴퍼스'가 식료품과 생필품 전달



▲ 305번째 후원자 '커피엔피시스템'이 마스크 5,000장 전달

동탄2동 「행복한 사랑나무」를 아시나요?

○ 사랑나무 개요(목적 및 추진경과)

■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에 1층 민원실 한 칸에는 이웃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 바로, 지역의 후원을 독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에 설치된 「행복한 사랑나무」입니다.

■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이 나무는 당초 100명의 릴레이 기부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100명을 훌쩍 넘어 2021년 9월 현재 313번째 나눔 릴레이 기부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 나눔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후원사진을 사랑나무에 게시하여 현재 행복한 사랑나무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동탄2동 이웃들의 선한 영향력

○ 사랑나무 참여방법(참여대상 및 참여방법)

■ 행복한 사랑나무는 개인, 단체, 기업체 등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는 정기후원자, 담배를 끊고 모아왔던 돼지저금통을 내어주시는 어르신, 어린이집 나눔장터 수익금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까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부를 멈추지 않고 매달 꾸준히 저소득계층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착한 가게들도 있습니다. 매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를 후원해 주시는 가게, 매출이 평소보다 더 나왔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물품 후원을 해주시는 가게, 매월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며 무료로 이발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또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고 어르신들을 위해 홍삼을 후원하고, 생리대가 부족한 가정에는 생리대를 후원하며, 직원들을 위해 구매한 마스크를 나누어 주시는 가게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반송동에서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면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매월 백만 원씩 후원을 하고 싶다고 찾아온 청년도 있었고, 명절 때 받은 용돈을 아끼고 모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면 엄마와 함께 손잡고 온 어린 남매도 있었습니다.

■ 또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생필품과 식료품을 기부하려 온 분들도 있었고, 감사할 일이 생겼다면 무명으로 깜짝 후원을 해주셨던 후원자도 있었습니다.

■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마음이 되고, 기부자님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현금 후원부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후원까지 마음이 모여져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비록 동탄2동에는 큰 기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후원자, 학생동아리, 복지시설, 은행, 교회, 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 지역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나무의 결실(열매)

○ 후원을 통해 추진한 사업내용(협의체 특화사업)

■ 이렇듯 동탄2동 행복한 사랑나무로 들어온 후원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투명하게 기탁처리가 된 후 다시 배분받아 지역특화 복지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부하신 분들께는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2021년도에는 독거어르신에게 「설날맞이 푸드박스」 전달, 저소득가구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꿈 이뤄드림」, 한부모가구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건강드림」, 가정의날을 맞아 독거어르신에게 홍삼, 상품권, 카네이션, 마스크를 전달하는 「감사드림」, 한부모가정에 아동마스크 전달, 독거어르신에게 「복날맞이 푸드박스」 전달, 저소득노인부부에 「이불 드림」 등 모아진 후원금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우리 마을의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금 또는 후원물품과 함께 용기와 희망을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시대,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 후원안내

■ 모두를 위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사회는 특별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직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이웃들의 작은마음들이 모여져 이루어집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연일 뉴스에 서는 생활고를 비판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주위의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나누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할 시기입니다.

■ 코로나19시대,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워야 하지 않을까요? 나눔,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마을 「행복한 사랑나무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신청 및 안내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 031-5189-5045, 4878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대표조직 주민자치회



읍·면·동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구역이고 자치계획은 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

21세기, 시민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구역으로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위이며 주민자치의 주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행정과 주민주도 자치계획은 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움

스위스는 26개 칸톤(한국의 시도역할)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2,200여개의 게마인데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게마인데의 80%가 게마인데 총회를 운영하며 소규모 게마인데는 란트슈케마인데(주민총회)에서 직접 민주적으로 지역문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2013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전국 49개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주민자치정책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란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읍면동·유관기관·주민 모두가 주민자치의 주체입니다.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위원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주민자치 의식 및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및 자율성을 확대하고 독립적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승하고 보완해 추진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추진절차를 알아보면, 읍면동 구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를 개최, 의결사항을 실행합니다.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하며, 주민총회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합니다.

자치계획은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정으로 자치 계획단을 구성하여 의제개발과 의제를 실행하게 되는데 자치계획안은 주민이 함께 우리 동네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제를 조사하고 발굴, 숙의해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상정되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의결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조직으로 20 명이상 50명 이하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분야별 5명 이내의 예비 주민자치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선정은 개방성과 의제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 공개추첨으로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능을 세분화하고 분과별 계획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민을 참여시킵니다.

주민자치회 업무는 크게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로 나뉘며 주민자치업무는 주민총회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입니다.

협의업무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며, 수탁업무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입니다.

화성시의 마을자치정책은 주민참여와 공동체적 문제해결, 민관협력과 속의 공론 고정을 거쳐 공공성의 경험을 주민자치 제도적 영역으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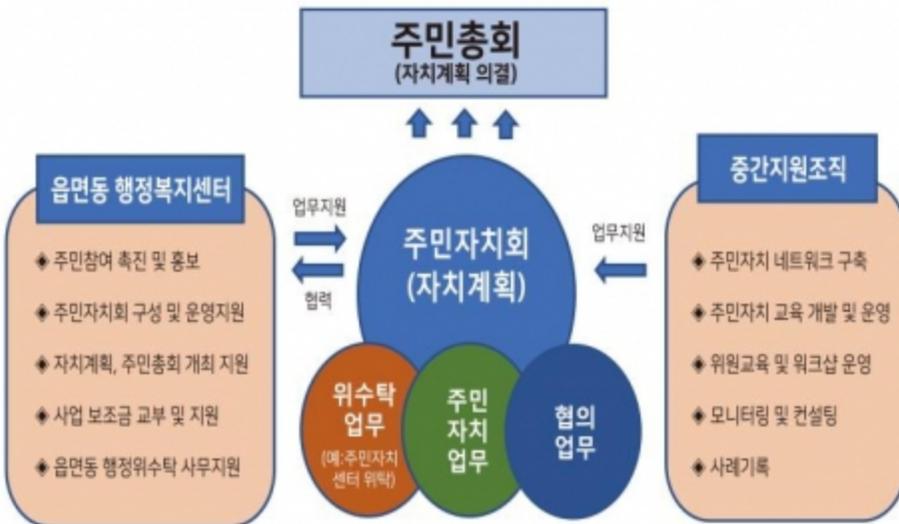
우리 화성시는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핵심 목표로 함께하는 도시, 시민 중심자치도시, 바른 성장 미래도시를 3대 방침으로 정하고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에게 이양하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화성시 마을자치정책은 주민참여와 공동체적 문제해결, 민관협력과 속의 공론 고정을 거쳐 공공성의 경험을 주민자치 제도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주민자치학교 기본교육 실시 등 주민자치회의 확대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동의 주민자치회의 활동사업

화성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중 동탄8동은 2019년 10월 개청한 동으로 화성시 최초로 임의사회단체를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여 시범적인 시민조직을 구성하였다. 동탄8동 주민자치회회는 반딧불이축제와 장지천마을장터, 공유부엌 '동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에 의존하던 주민의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해가며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체계]

2021년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의 주민총회

8월	9월	10월	11월
모의 주민총회 계획 및 준비위원 선정	온/오프라인 의제발굴 토론 (우선순위 투표)	주민총회 의제 후보 선정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온/오프라인 주민총회

동탄2동주민자치회

동탄2동주민자치위원회는 2021년 12월 임기를 끝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수요 증대에 맞춰 2022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마을의 비전이며 지속가능을 담보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위원, 전문분야위원, 공동체분야위원, 주민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으로서 기본적 의무수행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수입니다. 또한 행정의 보조를 통한 지역 봉사자로 위원들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탄2동주민자치회는 2021년 9월 구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월 공개 모집 후 11월 말 공개추천, 12월말 신규구성 및 위원 위촉, 2022년 1월 운영내규 워크숍, 운영세칙 제정, 임원구성, 인수인계 등을 거쳐 2월~5월 자치계획 수립 추진, 5월~7월 주민총회 사전준비 및 개최 등의 일정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동탄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22년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준비하고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세워보는 모의 주민총회를 11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주민권한이 강화되며, 주민참여로 주민간 신뢰관계가 증대 될 것입니다.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동탄2동 주민총회

2022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모의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 교육 및 문화예술, 이웃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자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 대상: 동탄2동 주민 ※ 기간: 10월 24일까지 (동탄2동에 거주중이거나 재직(재학)중인 사람)



‘동탄 도시철도(트램) 기본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 임박 동탄2동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 예상

경기도는 ‘동탄 도시철도(트램) 기본계획(안)’ 을 확정하고, 지난 1월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동탄 도시철도(트램)’는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 억원(예비비 제외)의 사업비를 투자해 2개 구간(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L=16.40km 정거장 19개소,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L=17.8km 정거장 17 개소)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L=34.2km이다.

동탄신도시 주민은 GTX-A·SRT(동탄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분당선(망포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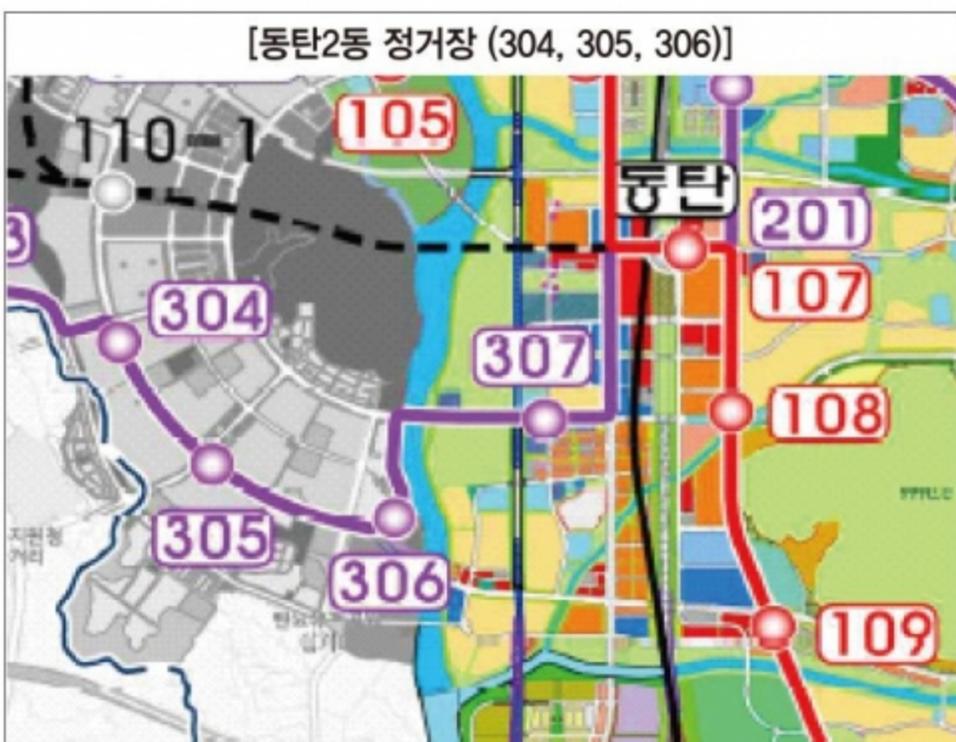
해당 노선에 투입될 트램은 1편성 5모듈로 246면이 탑승 가능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탄소배출 및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동탄 도시철도(트램)기본계획(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승인·고시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말 개통을 목표로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계와 건설 및 운영은 화성시가 주관하고 오산시,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출처: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경기도 보도자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동탄도시철도 전체노선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p>□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9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동탄신교통 반영) ○ '10.07 화성, 수원, 용인, 오산 간을 연결하는 신교통 수단 노선을 확정 발표(경기도) ○ '13.06 「경기동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 '16.11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 ○ '19.05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고시 ○ '20.03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착수(경기도) ○ '20.07 철도건설 기술자문회의(1차) ○ '20.09 철도건설 기술자문회의(2차) ○ '20.11 환경영향평가(초안)제출 및 주민 등 의견수렴 ○ '21.01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확정(경기도)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승인요청(국토부)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동탄2동은 동탄 도시철도 병점역(1호선)~동탄역(GTX·SRT) 구간에서 304역, 305역, 306역 총 3개의 정거장이 설치되고, 동탄역까지 평균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동 304역은 금곡초교사거리, 305역은 새강마을사거리, 306역은 동탄국제고 인근에 설치될 계획이고, 구체적인 트램 차량 시스템(배터리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등) 및 정거장형식(개방형, 폐쇄형)은 향후 기술개발 동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kss9811@hanmail.net / 김영철 기자



발전중인 “노작마을”

낙후된 유희공간,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다!

1. 장미정원 조성

3길 노작마을 장미정원 현판식 행사가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장미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인원으로는 2동 박동균동장, 총무팀장, 오진승위원장, 노작마을 김종대회장, 노작마을 김정섭 부회장, 노작마을 안한수 위원, 노작마을 장미정원 분과장 엄자경, 이승재 통장, 정미숙님 박영미님, 염기동님 그외 마을 어르신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장미정원은 3길 노작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노작 주민들이 쉼의 장소로서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장미정원은 낙후된 유희공간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마을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예산은 1억 2천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우리 노작마을에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연중 24시간, 자동요금 정산기를 이용한 채로 운영되며, 주차관리원이 없는 무인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차번 인식기(LPR)로 입차시간을 확인하고 출차 시 자동 요금 정산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되는 형식입니다.) 주차장은 5월쯤 완공 예정이었지만, 늦춰진 상태로 8월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완공 날짜가 늦춰진 상황이 아쉬웠지만, 완공된 주차장을 보고서 노작마을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하여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나는 왕이로소이다” 노작마을의 포토존



노작 홍사용 시인을 기리는 안내판과 포토존이 노작마을에 위치해있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설움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라는 홍사용 시인의 유명한 작품 <나는 왕이로소이다>와 시인의 생애를 다룬 안내판이 노작마을 반석산 입구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작 홍사용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포토존 앞에서 인생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께서는 노작마을 반석산 주위에 있는 포토존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산천과 반석산의 자치 호응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장미정원을 포함한 노작마을은 현재 1-2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새롭게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작마을에 새롭게 조성된 장미정원, 공용주차장, 그리고 포토존이 제 각각의 기능을 하여 노작마을 전체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노작마을 주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을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노인요양원 다정마을

노인 장기 요양병원 시설평가 연속 4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다정마을' 을 알아보다.



정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임), '도전(= 잠재능력 발휘, 기회제공)'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전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다정마을'을 설립하신 최병홍 선생님께서는

관련하여 이루어지며, 2009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 속 다정마을은 연속 4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정마을은 상담, 생활 지원, 의료 간호 서비스 이외에도 운동치료나 통증물리치료와 같은 기능회복 서비스, 미술, 음악, 건강체조, 놀이치료등을 제공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기타 여가 문화 서비스등 각종 행사등을 운영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다정마을'을 방문하고, 관련된 책자를 살펴보며 노인분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잘 준비 되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정마을은 치매 어르신들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어르신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제공하며, 다른 요양원과의 차별점은 '어르신분들과의 산책 일상화'라는 점이다.

다정마을은 주변에 갖고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어르신분들이 요구하는 점을 수용한다. 이러한 모습과 태도가 시설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였음을 예측해본다. 마지막으로 다정마을을 원장, 이금옥 선생님께서는 지역 사회의 어르신분들이 경로 무대석,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를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바지 해야한다고 말씀을 덧붙이셨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0년 다정마을을 재단을 설립했다” 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며 이외에도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평가는 어르신들을 대우하는 환경, 만족도, 인권과

shinjiwon4976@naver.com / 신지원 기자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삼계탕 봉사

김장나눔, 짜장면, 삼계탕봉사로 정기적 나눔실천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의미는 무엇일까? 지역사회 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동탄선덕라이온스와 동탄중부라이온스클럽은 한울타리 봉사단체와 6월29일 동탄2동 새강마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봉사를 실시 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라이온스클럽과 한울타리 봉사단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 되어 예전처럼 봉사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가서 힘을 보태고 있다. 선덕라이온스클럽 초대 회장인 김소영님은 “회원 여러분과 여러단체에서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정기적으로

삼계탕 봉사는 물론 짜장면이나 김장나눔등 활발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해주셨다. 이날은 한울타리 봉사단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삼계탕 120인분을 라이온스 회원들이 맛있는 떡과 빵을 함께 포장 하였고 비록 안전상 찾아뵙고 드리지 못하였지만,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오셔서 안전수칙에 따라 가져 가시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한울타리 봉사단의 짜장면 봉사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매주 화요일 동탄, 수원, 병점 등에서 수고해 주신다. 이 날 동탄2동 박동균 동장님과 이영진 복지팀장님이 깜짝 방문 하시어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고 모두가 뿌듯한 봉사로 아름다운 동행이 마무리 되었다.

0707wisdom@naver.com / 오금희 기자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동탄보건소 위문품 전달식

동탄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코로나 19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동탄보건소, 동탄임시선별검사소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송편과 음료수, 컵과일등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정수보건과장님이 이렇게 관심과 격려에 위원회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안내, 접수, 검사 채취, 소독지원을 해주시는 예비군중대 김재문 동탄2동 대장님은 각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야 얼른 물러가라~~



동탄2동 통기타 온라인 강좌를 소개합니다!

동탄2동 통기타 강사 이원희

앞서가는 동탄2동 문화프로그램!

코로나 19로 대면 강좌가 전면적으로 불가능 하던 지난해, 주민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수업을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동탄2동 주민동탄자치센터는 미디어 전문강사를 섭외하였다. 온라인강의를 희망하는 강사들에게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이론과 실전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고 그 결과 화성시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 가장 빠르게 온라인강좌가 개설되어 운영중이다.

동탄2동 통기타반은

2008년 1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교본으로 기본을, 분기별 종강발표로 실전을, 동탄2동의 탄요축제 연주로 큰 무대경험도 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강좌는 평일 오전에서 코로나19 이후 화, 목 오후 3시에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강좌 100% 활용하기

1인 1취미, 1인 1악기가 대세인 요즘, 온라인을 이용해 자기 개발을 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것은 100세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일것이다. 통기타를 배우는 방법으로 개인레슨, 학원, 문화센터, 동아리 등 매우 다양한 방법과 도서들도 생각보다 많다. 온라인을 통한 배움이 좋은 점은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유로우며 무궁무진한 자료와 선생님들을 개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주민센터 온라인강좌는 이웃과의 소통과 공연까지 할 수 있어 강력 추천한다.



동탄2동 통기타반의 온라인 강의 방식

온라인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니터에 강의할 악보를 띄우고 연주를 보여주며 일방적으로 설명 하는데 집중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수강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연주를 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분 부분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의 연주를 한명씩 들어보며 확인하고 수정, 보완할 점을 지도 함으로 해결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레슨이 된 후에는 원곡의 영상이나 음악에 맞추어 연주함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강의 내용은 기초 교본에 충실한 신입그룹과 연주에 필요한 이론과 테크닉, 실전곡을 병행하는 계속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고로 2021' 2분기에는 아이유의 "Celebrity", 이무진의 "골목길" 3분기에는 드라마 슬기로운의사생활ost의 "비와 당신" 이무진, 조정석버전과 영화씨봉ost "나그대에게" 김윤석버전을 커버했다.

수강생들이 전하는 온라인 강좌의 장점, 단점!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장소, 공간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좋으며 그리고개인별로 연주하고 점검받는 포인트레슨이 배움에 큰도움이 되고 다른수강생들의 연주를 들으며 배우는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특별히 운지나주법, 악보가 어려운 부분의 악보와 시범연주를 줌인으로 자세히 보여줌으로 이해하기 좋아 큰장점이란 평가가 많았다. 단점은 어울려서 연주를 하지 못한다는점과 인터넷상황에 따라 영상, 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 불편하다고 한다.

신도시·고급 환경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해 아파트 명칭 변경 추진중

아파트도 이름값을 하는 시대이다. 아파트 명칭이 마을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및 정주성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탄 나루마을 동탄역유보라여울숲1.0 아파트, 동탄 나루마을 동탄역유보라여울숲 2.0 아파트, 새강마을 동탄센트럴포레스트아파트는 이미 아파트명 변경을 완료하였고 솔빛마을 신도브레뉴아파트, 나루마을 신도브레뉴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주민들이 아파트 가치 정상화를 위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며, 그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구현하는 의미도 있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도 '물건의 품질과 함께 외관이나 명칭도 가치형성의 요소로서, 아파트도 시대 흐름에 맞게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집회 결의를 하거나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변경될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시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

셋째, 특정 브랜드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아파트의 실제적 유형적 변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명칭변경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위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게 되면, 관할관청인 시장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명칭변경과 같은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에 관한 사법상의 단체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에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루마을 신도브레뉴 아파트 회장 김종영은 "아파트명 변경은 신도시 및 고급 환경 이미지 확립 및 개선을 바라는 입주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기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석산 - 오산천에는 ○○이 산다.

동탄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쪽쪽뽀은 도로사이로는 고층빌딩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고 아파트 사이로는 학교와 상가들이 모여있어 새로운 마을의 형태를 잘 갖추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동탄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다. 바로 동탄의 허파 반석산과 오산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비로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인 동탄은 여러 생물들이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다. 반석산에는 고라니를 쉽게 볼 수 있고 60여 종류의 다양한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

오산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돌아와 모래목욕을 하고 삼, 너구리 등도 발견이 되었다는 제보가 있다.

모두 동탄 시민들이 이들을 잘 지켜준 덕이다.

사람과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도시 동탄의 가치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그러나 LH가 700억을 들여 생태하천정비공사를 한다고 한다. 반석산과 여울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름다리를 놓는다면 반석산과 오산천에 터전을 잡은 생물들 (멸종위기생물 포함)은 삶의 터전을 잃게되거나 멸종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탄의 또 다른 주민들인 수달과 고라니와 너구리를 구름다리와 바꾸는 것이 과연 동탄시민들의 바람일리는 없다. 700억이라는 LH의 통큰투자(?)는 공청회를 통해 동탄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동탄의 반석산과 오산천은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다. 반듯반듯한 도시 속에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반석산과 오산천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우리는 이미 수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지켜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 남은 자연을, 우리곁에 있는 생물들을.

s961119@naver.com / 신춘희 기자



동탄2동에 위치한 필봉산과 탄요유적공원에 대해 알아보기



깜탄: 오늘은 동탄2동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볼까?
깜요: 좋아~
깜탄: 먼저 필봉산에 가보자. 필봉산은 올라가는 코스가 세 개가 있어. 1코스가 나루고에서, 2코스는 대우 푸르지오 타운하우스에서, 3코스는 반송초교 사거리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 우리는 주다산교회 옆에 길로 가보자!
깜요: 신난대! 빨리 가보자~
깜탄: 오늘은 팔각정을 지나 필봉산 정상까지만 갔다 내려오자. 여기서 필봉산 정상까지는 2.01km이고 높이는 144.1m로 운동하기에 딱 좋아.
깜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
깜탄: 여자 걸음으로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 필봉산 유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조선의 22대 정조임금이 자신의 친부인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10여차례 행차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멀리서 보시고 붓의 끝처럼 생겼다고 하여 필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깜요: 산에 무슨 동물이 살아?
깜탄: 난 고라니도 보고 딱따구리, 청솔모, 다람쥐도 보고 뱀도 한번 봤어.
깜요: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지고 운동기구도 있어서 좋아.
깜탄: 그래도 조심히 잘 다녀~ 쓰레기는 가방에 넣고 집에서 버리기.
깜요: 알았어~
깜탄: 얘기하다 보니 정상이네. 계단 올라오느라 힘들었지? 여기서 물한잔 먹고 가자~
깜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깜탄: ㅋㅋ 다음은 탄요 유적공원을 둘러 볼까? 가는 길에 반송중학교 정문을 사이에 두고 150m 이상 되는 건강지압보도가 있어.
깜요: 나도 걸어볼래. 발바닥이 조금 아퍼도 걸을만해~
깜탄: 깜요 건강해지겠는데 ㅋㅋ 저기 게이트볼장이 보인다. 위치는 반송동 198-1이라고 적혀 있네.
깜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도 없어, 안에 엄청 넓고 좋아.
깜탄: 화장실에서 손씻고 가자~
깜요: 깜탄아~ 이리와봐. 골프하는 데가 있어. 퍼터 하는 데야.
깜탄: 그러네. 퍼터는 나중에 해보고 산책길이 있는데 걸어보자.
깜요: 영차영차... 힘들면 내손잡아~
깜탄: 힘 안들어~ 전통정자에서 간식 좀 먹고 가야겠다.
깜요: 꿀맛인데~! 여기 관찰데크가 있어. 밑에는 굴뚝조형물이랑 복합놀이대도 있고.
깜탄: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김밥 싸가지고, 깜요야~ 우리 과학놀이시설이 있는데 가보자!
깜요: 난 탄요유적지에 빨리 가보고 싶어.
깜탄: 여기 형아들이 공부하는 국제고등학교 옆길따라 가면 탄요 유적 1호기, 조금 더 가면 2호, 3호기가 있어. 탄요유적지에 대해서는 소담 창간호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 그걸 참고해. 오늘 어땠어?
깜요: 음~~ 이렇게 집 가까이 산이랑 유적지가 있다는게 너무 흐뭇해. 다음에 또 올거야~
깜탄: 우리 깜요 신났네~



[동탄2동 마스코트 : 깜탄이 & 깜요]

0707wisdom@naver.com / 오금희 기자



우리나라 근 현대사 주요 인물들을 그림속에서 만나다

작가의 말

나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주로 현실 참여적인 리얼리즘의 인물화들을 그리고 있다. 풍경화나 정물화와는 달리 사실적인 인물화를 보는 사람은 그림 속 인물에서 표정과 동세, 느낌 등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인물화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나는 그림 속의 인물들을 통해 나의 사상과 감정과 주장을 담으려고 노력해 왔다.

내 경험상 다른 소재에 비해 인물화는 그리기가 어렵고, 잘 그린 초상화는 그리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그림 장르 중에서 초상화는 그리는 과정이 무미건조하고, 진부하고, 대중성이 없으며 완성 후에도 좋은 평을 듣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 근 현대사 주요 인물들의 초상화적인 인물화를 꾸준히 그리고 있다. 그 계기는 어린 시절부터 존경했고 언젠가는 그려보고 싶었던 안중근의사를 2014년 겨울에 그리면서부터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때 마침 보수와 진보 세력들 간에 역사 교과서 논쟁이 한창이던 때라서 근 현대사에 대한 나의 인식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겨났었다.

일제 강점기에 자신을 희생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영웅들과 광복 이후 남북화해와 통일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열사들이 주로 그리는 대상이다.

내 초상화적인 인물화는 실존했던 인물과 닮게 그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닮게 그리는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숭고한 삶을 살다간 인물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게 그리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사료로 남아있는 귀하고 희미한 사진들을 최대한 분석한다. 단순히 남아있는 사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특징, 키, 체격, 옷, 느낌까지도 분석하여 나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새로운 설정으로 재창조되는 초상화들이다. 그래서 대개는 그리는 시간보다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고 구상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앞으로도 내 작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몸 바쳐 희생하였지만, 분단과 이데올로기에 가로막혀 잊혀진 영웅들을 그려 드러내 보이고, 우리 현대사의 최대 과제인 남북화해와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계속 그려나갈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외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분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작가의 노트 중에서-



안한수 작가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당시 22세로 전남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5월 민중항쟁의 한 가운데서 자신의 온몸으로 겪은 충격적인 진실이 왜곡되어 알려지면서 그 진실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었고 그전까지의 유희주의적인 그림을 그리던 것에서 변화가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1983년경부터 현실 참여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리얼리즘 목판화 운동과 '광주전남 미술인공동체' 창립 멤버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1980~90년대 광주 전남 지역의 민중미술의 주역이 되었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는 5월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알리고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 정치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미술 작품으로 담아내는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미술 단체였다.

안한수 작가는 현재도 광주민중미술협의회 일원으로 31년간 매년 열리는 5월전 등 수많은 단체전과 4번의 개인전으로 열심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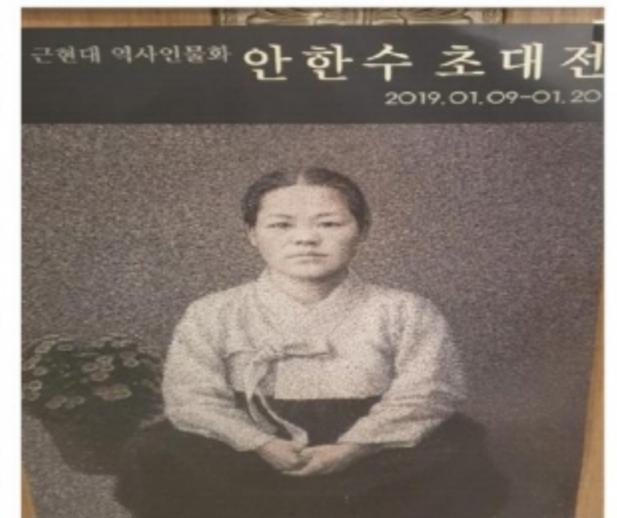
안작가는 이처럼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을 만들어낸 역사속 시간들이 결코 동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실에 임태되어 다시 그것이 현실이 됨을 각성시켜주고 있다.

작가가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2014년 말부터 작업해온 역사 인물화는 그때 크게 부각되었고, 2019년 6월의 작가로 국회아트갤러리 초대전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전시되었다.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 불행했던 우리 근 현대사에서 헤아릴 수없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열사와 청년 학생들의 피의 댓가로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우리 현대사의 최대 과제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현실 참여적인 미술가의 역할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그 바람을 시각화하여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안한수 작가 같은 작가들이 더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박영미 주민자치위원



자연을 실내로 들여와서 건강도 챙기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공기정화식물이 사람에게 주는 효과 너무 커 요즘같은 시기에 적합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자연 친화적인 플랜테리어(Planterior)가 인기를 얻고 있다.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는 말 그대로 식물로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요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로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실내 공기정화와 함께 식물의 녹색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 플랜테리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카페, 도서관, 백화점 등과 같이 여러 곳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다. '반려동물' 뿐만이 아닌 '반려식물'이라는 트렌드에 맞물려,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식물을 돌보며 손에 와 닿는 잎의 촉감, 기다림 끝에 달린 꽃망울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 물을 줄 때 살포시 풍겨오는 흙내음은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잠깐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플랜테리어 트렌드에 발맞춘 장소를 소개한다면, 가까운 곳으로는 동탄에 위치한 '근린정원'이나 '포근베이커리', '꽃꽂이 당신'과 같은 카페가 있어 커피 한잔의 여유와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시간을 내서 멀리 갈 수 있다면 양주시의 '오랑주리', 북한강변의 '라온숲', 기흥에 위치한 '지앤아트스페이스'도 자연과 관계를 맺고 식사하며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추천을 하고 싶다.

0707wisdom@naver.com / 오금희 기자

함께 실천해요! 제로 웨이스트!

동탄2동 타운하우스촌에 입점한 제로웨이스트 상점, 이보니 점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 꿀Tip)

- ① 작은 것부터 즐겁게 실천할 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면 재활용하는 날, 현저히 줄은 쓰레기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실천 의지는 지속 가능해진다.
- ② 가족과의 마찰까지는 NO!
자신의 의욕이 넘친 나머지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면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천천히 공감할 수 있도록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순간 함께 실천하게 된다.
주변 지인들에게 식물 수세미나 대나무 칫솔 같은 작은 선물을 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③ 요즘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용기내! 캠페인'은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반찬, 빵, 아이스크림 등을 살 때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들고 가서 담아오는 캠페인을 말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실천해보기를 권유한다. 반찬 가게나 빵집, 치킨집 사장님도 용기를 들고 오는 것을 환영하는 편인데, 시민들이 오히려 용기를 내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는 '용기내 환영'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솔빛 나무 상가에 배포중이다.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란?

동탄2동 나무마을 타운하우스촌을 산책하다 보면 '담배공초 무단투기NO' 라는 입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입간판 뒷면은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와 자신만의 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최근 SNS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에대한 설명이 핵심어로 정리되어 있다. 일회용품 안쓰기, 음료는 텀블러에, '용기내' 용기내 챌린지: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천 주머니, 에코백, 다회용기 등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이다. 식재료와 음식을 다르게 포장하는 것만으로도 포장 용도로 낭비되는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포장하기, 다회용품 구입, 'All 바른 상점'은 제로웨이스트 상점이다. 포장 대신 소분하여 담고,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 대체용품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보니 점장의 환경 실천 의지로 생겨난 상점이다. 'All 바른 상점'은 누구나 와서 체험해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예를 들어 식물 수세미 하나 써볼까 관심을 갖다가도 달랑 하나 사면서 택배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택배는 포장을 비롯,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 등 환경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는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곡물이나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와서 무게를 달아 구매하는 체험을 통해 무포장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이스팩이나 커피 찌꺼기, 사용하지 않는 크레파스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리사이클링 업체에 전달해주는 플랫폼 역할도 해준다.

동탄 주민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재적인 실천으로 잇는 네트워크를 접함으로써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거북 코에 꽂힌 플라스틱 빨대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느낀 건 바다거북 사진이다. SNS에서 바다거북의 한쪽 코에 꽂힌 플라스틱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SNS로 캠페인을 알리는 데에 한계를 느낀 그는 자신의 필요로 상점을 열었다고 한다. 바다거북뿐만 아니라 쓰레기섬 같은 사진을 통해 경각심을 느껴왔으나 실천이 어려웠다면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리필 스테이션 (Refill station)

#용기내 환영
가져오신 그릇에
담아드려요

개인의 노력으로 캠페인을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보완과 지원이 확대되면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더 많은 실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 곡물이나 세제를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리필스테이션을 마련해준다면 지역 농산물을 장바구니나 용기를 활용하여 구매함으로써 포장을 줄일 수 있다.

하나씩만 바꿔보아요.
환경실천에 관심이 있는 동탄2동 시민이라면 가까운 곳에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 있으므로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환경 지킴이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네이버카페 : 제로웨이스트홈 <https://cafe.naver.com/zerowastehome>
- 문의 : All 바른 상점 <https://www.instagram.com/all.bareun.shop/>

bluujone@gmail.com / 안지원 기자

“청소년 기사코너”

습지가 있어 더 아름다운 동탄2동

우리 가족은 주말에 여울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한다. 지난주에는 여울공원에서 조금 더 벗어나 넓게 습지를 따라 산책을 했다. 산책 하며 습지를 구경하니 오리들, 물고기들, 다른 새들이 많이 보였다. 나는 이번년도 일학기 때 환경교육을 받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었는데 습지를 보니 그때 교육받았던 내용이 떠올랐다.

습지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어준다고 한다. 오산천에는 수달, 너구리, 백로, 삵 등 많은 동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특히 오산천은 반석산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주에 산책 할 때도 오산천에서 여유롭게 노는 백로를 보고 나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었다. 높은 건물, 바쁜 도시와 대비되는 여유롭고 평온한 자연, 오산천 습지가 있는 우리 마을이 좋다. 물론 예쁘게 정돈된 반듯반듯한 공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습지의 중요성을 알고 나면 우리 마을의 습지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 최정인 청소년기자



▲ 오산천 습지



▲ 오산천을 돌아다니는 백로



▲ 반석산과 높은 건물들

2020도쿄올림픽 참가 종목 중 생소한 종목에 관하여....

7월 23일부터 시작된 2020도쿄올림픽은 8월8일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하였다. 총 33개의 종목으로 배구, 사격, 역도, 태권도, 탁구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가라테, 조정, 럭키, 트라이애슬론 등이 있다. 이번 2020도쿄올림픽 종목 중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종목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먼저 가라테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격투기 중 하나이며 무기를 쓰지 않고 신체 각 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겨루는 무술이다. 가라테의 세부종목으로는 가타와 구미테가 있으며 각 세부종목별로 10명이 출전 가능하다. 가라테는 이번 2020도쿄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희준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아쉽게도 동메달전에서 패배하였다. 다음으로 럭비는 각 팀 15명이 경합하여 더 많은 점수를 내는 팀이 이기는 구기 종목이다. 럭비의 경기 시간은 80분이며 축구, 미식축구와 다르게 손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진패스가 불가능하며 오프사이드가 매우 엄격하다. 럭비에는 15인제와 7인제가 있는데 15인제는 주로 월드컵, 7인제는 올림픽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도 7인제로 열린 올림픽에 출전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출전하지 않은 종목인 트라이애슬론이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사이클, 마라톤의 세 종목을 연이어 겨루는 경기이다. 일반적으로 수영은 3.9km, 사이클은 180.2km, 마라톤은 42.195km가 기준이다. 트라이애슬론은 다른 말로 아이언맨, 철인 3종으로도 불린다. 말 그대로 철인만이 할 수 있는 극한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선수들에게 더 힘든 올림픽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량을 뽐낸 선수들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다음 파리올림픽도 힘을 내어 열심히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 김세현 청소년기자



가라테



트라이애슬론

더운 여름, 폭염으로부터 이겨내기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은 더위를 피해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특히 우리는 폭염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안전 수칙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 33° C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울리고, 35° 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울린다. 또한, 38° C 이상일 때는 폭염, 40° C 이상일 때는 극염이라고 부른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현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분야별 영향도를 고려하여 발표하는 예보를 말한다. 폭염의 위험 수준을 알려주고, 폭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일반인) 분야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하고 있다. 이때 분야는 보건 분야, 산업 분야, 축산업 분야, 농업 분야, 수산양식 분야, 기타 분야 6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관심 단계, 주의 단계(폭염주의보 연계), 경고 단계(폭염경보 연계), 위험 단계의 순서로 4가지 위험 수준으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 취약한 대상에서는 이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을 의미하고 주의 단계는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을 뜻한다. 그리고, 경고 단계는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며 마지막으로 위험 단계는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다. 기상청 날씨 누리에 들어가거나 기상청 날씨 알리미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쉽게 폭염 영향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년보다 더 더워진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2.6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온열 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일사병(열탈진) 등이 있다. 열사병과 일사병은 메스꺼움, 구토, 두통, 무력감, 어지럼 등과 같은 증상이 생긴다. 열사병은 의식이 없고 체온이 40° C를 초과하여 피부가 건조해진다. 열사병 환자를 보게 된다면 119에 즉시 신고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넥타이나 윗단추 등을 풀어 환자의 체온을 낮춰야 한다. 일사병은 의식이 있고 정상체온이거나 약간 높은 경우이며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난다. 이럴 때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

폭염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폭염 안전 수칙이 있다. 첫째, TV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둘째, 뜨거운 낮에는 바깥 활동을 줄인다.

셋째, 최대한 햇볕을 피해 그늘로 걷는다.

네 번째,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 냉방병 위험이 있으니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다섯 번째,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자주 마신다.

여섯 번째,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한다.

일곱 번째, 닫혀 있는 자동차 안에 혼자 있지 않는다.

여덟 번째, 갑작스럽게 찬물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칙 8가지만 잘 지켜도 이번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기사코너”

벌써 4차 대유행 중인 코로나 최근들어 변이 바이러스들도 발생 중...

2020년 2월 초쯤에 처음으로 감염이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만 넘어도 호흡기를 떨던 우리는 하루에 4자리 수가 넘어가는 확진자 수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병점중학교까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점점 우리의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 현재 출시되어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들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 발표가 나왔다. 이 실험에서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감염 예방이 약간 감소하지만 2회 접종을 완료한다면 80% 이상 감염 예방에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입원 및 사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변이 바이러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총 2천 52만명이며 인구 대비 40%의 접종률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델타형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배양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델타형 바이러스는 약 2.7배 정도 전파력이 더 높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증상들이 조금씩 더 심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현 상황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공식화했으며 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일일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8월 9일 교육부는 2학기 개학시 전면등교를 목표로 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초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이 등교하고 3학년부터 6학년은 원격수업 그리고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 1과 고 2가 병행하며 등교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고3은 매일등교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2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될 시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일단 마스크 착용을 하나의 패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져 여러 디자인의 마스크들이 출시되고 마스크를 꾸밀 수 있는 부가적인 아이템들도 많이 생겼다. 그리고 외식과 외출, 여행, 모임, 대면 수업 등이 줄어들고 온라인 모임, 화상 수업, 주문 배달, 재택근무 등이 엄청 늘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발달되어 우리는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홈트 등과 같은 굳이 밖에 나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진출처 : 네이버 특별문영클래스 블로그)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집에만 있어야 하다 보니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는 자취생들이나 회사원들, 그리고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일년이 지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밖에 자주 외출하고 기본적인 예방수칙들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이 감소할 것이다.

/ 최예나 청소년기자

촉법소년법 개정 필요한가?

요즘 촉법소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촉법소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거로 판단되어 형벌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중학교 1학년 A군 등 4명은 최근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연쇄 차량 절도 범위를 저질렀다. A군 등 4명은 절도한 차를 타고 인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3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촉법소년 제도 때문에 A군 등 4명을 풀어야 했다.

풀려난 A군과 친구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촉법소년 조항 덕에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청소년들을 꾸짖으신 할아버지에게 역으로 목을 조르는 등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며 “너도 때리고 싶으면 때려. 우리는 어차피 처벌 안 받아.” 라고 웃으며 말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가며 전국의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촉법소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많은 의견이 인터넷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어른들만의 갈등이 아닌 청소년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조차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폭력이 있는데 매년 발생하는 사건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청와대 청원에 한 중학교 1학년 엄마가 중학교 1학년인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하다며 촉법소년 법을 폐지해달란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이 참여 인원 30만 명을 넘기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 이소연 청소년기자

“청소년 기사코너”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점... 고칠 방법은?



(사진출처 : 네이버 [서울=뉴스핌])

여름 방학이 끝나가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많은 학생은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방학을 알차게 보냈다고 느끼는 사람도 혹은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다 끝내지 못해 허무하게 보냈다고 생각해 실망스러운 사람도 모두 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특히 새로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은 이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을 것이다.

물론 성공의 기준에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사회적 성공으로 삼는다. 이래야만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고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에 치여서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게 과연 진정한 내 행복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나도 커서 저 생각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꽤 높은 나라에 속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살로 이끌게 되는 주요 원인은 사회적 또는 개인의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우울감에 충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유가

입시때문은 아니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2013년에 통계청에서 실시되었던 사회조사의 결과를 보면 13~19세, 즉 청소년들의 나이인 학생들 중 12.1%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은 성적이나 진학 때문이라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대학만이 중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시에선 청소년들이 겪는 입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입시로 인해 원치 않는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그동안 해온 노력이 아닌 결과에 점점 집착을 하게 되고 자신이 받는 모든 점수를 서열화함으로써 더욱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입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입시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에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학벌 차별과 직업차별은 청소년들이 더욱더 입시에 대해 집착을 하고 입시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요즘 이를 줄이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회사에 들어간 후에 이루어지는 차별들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또한 우리는 사교육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따로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반면, 우리는 사교육에 온 힘을 쏟아도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사교육에만 힘을 쏟다 보니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업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시킬 일이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학교의 시험문제도 오직 암기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생각하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면 청소년들이 가지게 되는 공부의 압박감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크게 자리잡혀있는 부분의 문제라 하루사이에 바뀌어 있을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간다면 언젠간 입시에 고통 받지 않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입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최예나 청소년기자

가을, 독서의 계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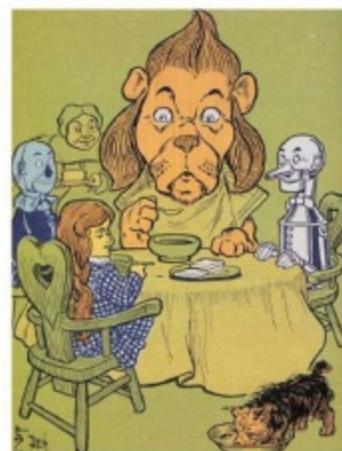
『검은 여우』 베치 바이어스 ◆대상 : 초등 3~4학년, 학부모



주인공 '툼'과 톼의 부모님 대화가 우리 가족과 닮았습니다. 아이는 귀찮아하고, 부모는 설득해보려 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어릴 때는 식물 하나, 동물 하나에 관심도 많았는데, 점점 게임, 휴대폰만 하려는 아이들 보며 걱정하시는 부모님 많으시지요? 물론 이 책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텔레비전이지

만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톼은 부모님이 여행을가시게 되어 농장을 운영하시는 이모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검은 여우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지요. 지루한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톼은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 나누며 읽다 보면 아이와 가까워지고, 아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즈의 마법사』 ◆대상 : 초등 5~6학년



주인공 도로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마법은 물론이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이죠. 그럼에도 도로시가 중심에 있습니다.

책의 후기에서도 도로시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성공을 거두자 작가는 <오즈> 시리즈를 연속 출판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한 실패작이 『멋진 오즈의 나라』

인데, 도로시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로시가 중심에 있을까요? 아이 말대로 도로시는 문제해결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했던 양철 나무꾼과 사자, 허수아비를 도로시가 도와줌으로써 모험이 시작될 수 있었지요.

도로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따뜻한, 진심, 사랑을 가진 가장 아이답고 순수한 인물입니다.

읽는 내내 도로시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게 돼요.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모아주는 그 구심점에 도로시가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를 통하여 아이들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간직하면 좋을 책입니다.

blujone@gmail.com / 안지원 기자

화성시 금연거리 조성 촉구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담배를 피우면서 길거리에 뱉는 침으로 인해 코로나 19 전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담배꽂초 및 거리에 뱉는 침 또한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원 등 일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 거리 확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에서는 보건소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거나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적은 있으나 아직 금연거리 지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같은 비말 감염 우려가 큰 전염병 예방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꽂초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화성시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및 학원가를 '화성시청소년금연거리' 로 지정하기를 제안한다.

우선 청소년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상가밀집지역(나루상가)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화성시 청소년 금연거리'는 ①관내 통학로 주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② 학생·학부모·주민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중 금연 거리 지정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③이를 반영해 화성시가 관련 조례로 지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더불어 '금연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에는 바닥형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과 로고젝터 및 태양광 LED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제안한다.

동탄2동 주민 권정인은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을 통하여 청소년의 비흡연 선택 및 흡연시작시기의 지연과 흡연청소년들의

금연교육은 청소년의 건강유지 및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나루마을 신도브래뉴 아파트 회장 김종영은 "학생·학부모·주민이 참여해 선정하는 금연거리는 살기 좋은 화성시의 밑거름" 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write4purejoy@naver.com / 오진주 기자



사진은 이촌1동 용강중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 모습.(사진=용산구)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솔빛나루역”은 동탄2동 주민들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가??

화성시

화성시는 연장사업 별도 추진중

신안산선 연장 사업 GTX-C 노선연장 병점~동탄(1호선 연장)

관련부처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 진행중

시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화성시청 홈페이지]

이렇듯 솔빛나루역은 하세월 동탄2동 주민들의 희망 고문으로, 화성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희망 공약으로 허울뿐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솔빛나루역 포함이 기대되는 “병점-동탄(1호선 연장)” 노선이 제외되자, 동탄2동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솔빛나루역”은 이렇게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가?

언제까지 “솔빛나루역”이 화성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희망공약이 되어야 하는가?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점~동탄(1호선)연장이 확정될 경우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서부 및 북부, 수원 접근성과 수인선을 이용한 안산, 시흥, 인천 지역으로의 교통 이동 편의성은 물론이고, 인동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직접적으로 동탄역과 연결되어 이용객들이 화송열차를 타고 서동탄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져 환승 편의성까지 대폭 상승한다. 반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과 SRT 이용을 원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이용 승객들 또한 동탄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수월해지며, 추후 동탄역 동쪽과 아래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계기 또한 생겨나게 되어, 수도권 전철 1호선 동탄역 연장은 철도의 현재와 미래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타당성 측면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탄인덕원선은 기재부에서 사업비 263억원 증액을 확정하여, 인입선이 당초 116번역(메타폴리스인근)으로 연결하는 방안에서 117번역(동탄역)연결로 변경되어,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노선은 솔빛나루상가를 지나가도록 하였다.

솔빛나루상가를 지나가는 인입선 서동탄역~동탄역 구간은 연장 L=4.6km로 동탄인덕원선 정거장간 평균연장 L=2.1km 보다

2배 이상 길고, 동탄역에서 솔빛나루역(가칭)은 연장 L=2.3km 이므로, 동탄2동 주민들(약 3.6만명, 2020년 10월 기준)은 솔빛나루역(가칭) 설치를 통해 철도이용 편의를 반드시 보장받고자,

“동탄2동 주민들은 전철역이 없는 동탄-인덕원 인입선 공사에 반대한다.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전철역 추진에 대하여 비협조적이었으며,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보낸 연명부에 대하여 답변 없이 이송처리 하는 등 주민들을 우롱하였다. 이에 동탄2동 주민들은 더 이상 국토부 외 유관기관들을 신뢰할 수 없다.

화성시에서 건의한

[1호선 서동탄역 - 솔빛나루역 - 동탄역 연장 사업은

1. 신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가지는 사업이며,
1. 동탄의 동서를 연결하여 향후 동탄역의 사업을 확장시킬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올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연명부를 작성하였다.

동탄2동 주민들은 1호선 동탄역 연장을 통한 솔빛나루역(가칭)설치 또는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상태에서 솔빛나루역(가칭)이 설치되어 장래 동탄2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kss9811@hanmail.net / 김영철 기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7월5일 확정 고시되었다.

화성시는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동탄~청주공항)” 이렇게 3개의 노선이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자축하는 분위기다.

화성시는 금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신안산선 연장”, “GTX-C노선연장”, “병점-동탄(1호선연장)” 3개 노선은 관련부처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진행중으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화성시를 3선 국회의원이인 이원욱의원은 20대, 21대 후보자로서 솔빛나루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수술 치료 같은 “양방향 척추내시경술(BESS)”

〈 허리 통증 해결 〉



▲ 오산척추클리닉 삼성본병원 강준희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된다는 허리 통증.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허리이지만,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보니 허리 통증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형태로 나타난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본인의 질환을 방치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허리통증을 개선하고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적절한 치료법은 무엇일까?

삼성본병원 척추클리닉 강준희 원장은 "실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10%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이를 잘 몰라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척추질환의 수술은 대부분 절개 수술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절개 없이 초정밀 내시경을 이용하여 허리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술법이 개발되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BESS는 절개없이 5mm의 두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한쪽에는 8~10배율의 초정밀 내시경을 삽입해 시야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는 수술도구를 독립적으로 사용해 효율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척추내시경보다 발전된 기법으로 척추질환의 원인인 비후 된 인대나 뼈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수술방법이다. 기존 척추내시경은 하나의 구멍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하나의 기구로 보면서 시술해야 해 시야가 제한적이었지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은 두개의 채널을 모두 이용해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광범위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

초고화질 내시경 화면을 통하여 허리 통증을의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 시야가 넓고 확실해 다양한 척추수술에 적용이 가능하고 절개가 없어 근육 손상과 통증이 적기 때문에 최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수술 시간이 약 30~60분 정도로 짧고, 절개 없이 진행되어 절개 시 발생하는 허리주변의 조직이나 근육 손상이 없는 데다, 통증도 거의 없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입원기간이 2~3일로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편이다. 또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를 비롯하여 척추관협착증 등 거의 대부분

척추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

삼성본병원 척추클리닉 강준희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은 “양방향 (투포트) 척추 내시경술은 비수술에 가까우면서 결과는 절개가 필요한 수술처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시술시간과 입원기간도 대폭 줄여 환자 불편이 개선됐다 또 “조직 손상과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단 정밀을 요하는 수술인 만큼,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나는 삼성본병원에 갑니다
대표전화 1522-7525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75 [더샵파크시티 맞은편]

나답게 살기!!



▲ 2021도쿄올림픽 배구

얼마 전 폐막식을 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1년이나 연기가 된 것부터 코로나 시국에 강행된 것, 후쿠시마산 먹거리, 골판지 침대 등 많은 이슈를 남겼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여자배구팀과 양궁의 안산 선수를 꼽을 수 있겠다.

여자배구팀은 팀내에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겪었음에도 주장인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4위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나 매달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결과 중심의 우리 사회가 과정 중심으로, 매달 중심의 올림픽이 서로 응원하는 하나 됨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다음은 여자양궁 금메달 3관왕의 안산 선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숏컷 헤어스타일을 하고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과거 sns에서 '허버허버', '오조오역' 등의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숏컷이 문제인가? 페미니스트가 문제인가? sns에서 신조어를 쓴 것이 문제인가? 숏컷도, 페미니스트도, 신조어도 무엇도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남혐, 여혐의 프레임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회이다.

메달에 연연하지 않고 올림픽을 즐기는 성숙한 우리는 이제 혐오라는 것을 벗어내야 할 때이다.

나답게 살고
나답게 사는 누군가를 응원하고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닌 진정 나다운 것을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우리 삶도 과정 중심으로 바꾸어보자. 나답게!!

s961119@naver.com / 신춘희 기자



▲ 2021도쿄올림픽 양궁 - 안산 선수 (사진출처 : 아이뉴스24)

동탄2동 자율방재단



▶ 화성시 자율방재단은 어떤 단체인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에 의거한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민간자율 방재 조직으로 자연 및 사회재난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의 민간역할 분담을 하는 단체입니다.

일상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응급복구를 돕기 위해 설립된 민간법정 단체가 있는데 바로 자율방재단입니다. 화성시는 2007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및 사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과 재난관련 피해발생지역 사전감시활동, 신고, 정비 등의 대책도 강구합니다. 또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복구와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 및 보건관리를 시행하며 이재민의 대피소관리와 긴급구호물자 조달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율 방재단은 화성시에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 현재 단원구성은?

현재 화성시 자율방재단은 총괄 및 홍보팀, 예찰팀, 복구팀, 구호팀, 구조팀, 장비지원팀 등 총 350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에는 향남, 남양, 봉담, 서신, 송산, 새솔, 병점1, 병점2, 반월, 화산, 동탄1~8동 등 읍면동 단원이 활동 중입니다. 화성시의 방재단 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빠르면 올해 안에 28개 읍·면·동 별로 조직을 개편해 체계적인 방재 활동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탄2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6월 28일 구분숙대표를 중심으로 신평자부대표 김수남총무 등 임원진을 구성하여 현재 단원 16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동탄2동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은?

먼저 봄철 해빙기 예찰활동을 시작으로 화성시 관내 무더위 쉼터 전수조사, 나무전도

제거 활동, 해충 피해예방 방역, 침수지역 복구, 환경정화, 코로나19 소독 및 캠페인, 호우피해지역 복구, 제설작업, 등 화성시 및 동탄2동의 재난, 재해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저희 동탄2동 방재단의 일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폭염, 긴 장마에 태풍까지 동탄2동 자율방재단 활동에 화성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내 경로당 12곳의 폭염대비 취약시설 점검을 시작으로 이동량이 많은 보행자도로(산책로) 및 민원 발생지 해충 방역, 상가밀집 지역(나루상가) 코로나 19 소독 및 방역수칙 리플릿 배부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버스정류장 소독 및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 관내 노인정 소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동탄2동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동탄2동의 재난과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 및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서 주민이 먼저 솔선하고 행정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활동입니다.

▶ 단원들과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동탄2동 자율방재단의 단원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의 단원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동탄2동의 방재단 활동을 위해서는 인원을 보강하고 팀을 분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지역은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이고 바램이기도 합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누구나 주저하지 마시고 방재단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탄2동 자율방재단을 기억해주시고 저희를 보신다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동탄2동 자율방재단 화이팅!!

동탄2동 자율방재단 / 부대표 신평자

소담기자단

단 장 : 오금희 편집장 : 신춘희
부단장 : 신지원 홈페이지관리자 : 성주향

광고문의 : 동탄2동주민자치센터 031) 5189-4756
<http://dongtan2dong.co.kr>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http://dongtan2dong.co.kr>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동탄2동 소식 및 화성소식, 프로그램소개 등을 확인하시며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동탄2동 소식지 기자단 모집

- 대상 : 청소년 / 일반
- 인원 : 총원시까지
- 문의 : 031-5189-4756
동탄2동주민자치센터

“도전은 아름답다”